



## 이강인 16강 부탁해

## 오늘 밤 포르투갈과 운명의 대결... 선발출전 최대 관심

드디어 진가를 드러낸 '골든보이' 이강인(마요르카)이 벤투호에 16강행 티켓을 안길 수 있을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 3일 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직), 브루누 페르난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호화 공격진을 보유한 포르투갈은 앞선 두 차례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불릴 만한 경기력을 과시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도전에 나서는 벤투호에 이강인의 존재는 희망을 품게 만드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다. 이강인은 한 번의 패스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나전에서 증명해냈다.

한국이 0-2로 뒤지던 후반전 12분 교체 투입되고서 1분 만에 조규성(전북)의 추격 골을 돕는 '택배 크로스'를 날렸다.

이를 발판 삼은 한국은 조규성의 2번째 골까지 더해 2-2 동점을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2-3으로 졌지만, 이강인의 활약 덕에 참패를 면했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3차전에 입할 수 있게 됐다.

이강인의 영향력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통계 서비스 '풋볼 데이터 플랫폼'과 사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한국은 가나전에서 총 42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 패스 하나로 흐름 바꾸는 원발의 마법사 위기의 벤투호에 새 희망

그중 약 5분의 1인 8개가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왔다.

또 한국이 기록한 20개의 슈팅 중에서 3개를 이강인이 썼는데, 하나같이 위협적이었다.

그중 하나는 후반 30분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시도한 원발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골대 오른쪽 하단 구석으로 향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이강인은 특히, 23개의 패스를 시도해 22개나 성공시켜 패스 성공률 95.7%를 기록했다.

이는 후반 46분 교체 투입된 수비수 권경원(100%·9차례 시도)을 제외하면 이날 그라운드를 밟은 한국 선수 중 최고 수치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의 A매치 데뷔 무대인 지난해 3월 한일전(한국 0-3 패)을 제외하면 한 번도 이강인을 선발로 투입한 적이 없다.

한일전 이후 한동안 부르지 않다가 9월 A매치 때 소집했으나, 1분도 뛰게 하지 않았고,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루과이전, 가나전에 잇따라 교체 투입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존재가 대표팀 공격력을 증폭한다는 점이 증명된 마당에 교체 투입을 계속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포르투갈전은 반드시 골을 넣고 승리해야 하는 경기여서 더 그렇다.

빌드업 작업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할 이강인이 선발 투입된다면, 때로는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도맡은 손흥민(토트넘)이 부담을 많이 덜고 '특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마침 이강인과 손흥민은 포르투갈전을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치러진 팀 훈련에서 '한 조'로 벨린스 훈련을 해 동반 선발 출전 기대감을 부풀렸다.

이미 가나전 선제골로 좋은 호흡을 보인 이강인과 조규성의 '콤비 플레이'도 기대된다.

이강인은 '헤더 결정력'이 좋은 원톱 공격수를 누구보다 잘 활용하는 선수다.

이강인은 올 시즌 소속팀 마요르카에서 정규리그 2골 3도움을 기록했는데, 이 중 도움 2개가 이강인의 프리킥이나 크로스에 의한 스트라이커 베타드 무리키의 헤더 득점으로 기록된 것이다.

정확한 롱패스·크로스가 일품인 이강인과 '월드컵 레벨'의 결정력을 증명한 조규성의 '합작골'이 포르투갈전에서 또 터져 나올 수 있다.

유소년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축구를 배운 이강인이 '이베리아반도의 축구'를 대표팀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선수라는 점도 벤투 감독이 선발 명단을 짤 때 고려해야 할 점이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의 실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월드컵 본선 두 경기에서 실력을 잘 보여줬다. 우리 스타일에도 잘 녹아들었다"고 호평했다. /연합뉴스

## 난민 선수 4명...16강 진출 호주 '다양성의 힘'

'사커루' 호주가 '약속의 땅'인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논 스타디움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기적의 16강 진출을 일켰다.

호주는 1일(한국시간)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덴마크를 1-0으로 따돌리고 2승 1패, 승점 6을 쌓아 골 득실에서 앞선 프랑스(승점 6·2승 1패)에 이어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영국 BBC 방송, 데일리 메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영국과 호주 매체들은 호주의 16강 진출에 놀라움, 충격적인 승리라고 일제히 타진했다.

호주 축구대표팀의 숨은 힘은 다양성이다.

1일(한국시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D조에서 덴마크를 1-0으로 꺾고 2승 1패, 승점 6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호주 대표팀 26명 엔트리 가운데 4명은 난민 출신 선수다.

수비수 밀로시 데게넨(콜럼버스 크루)이 태어난 크로아티아의 크닌은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충돌로 전쟁터가 됐다.

포화를 피해 7살 때 난민으로 호주에 정착한 데게넨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박감이라는 말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던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축구는 이기고 질 수는 있어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다"며 전쟁의 참혹함을 전하기

도 했다.

수비수 토머스 뎀(알비렉스 니가타)과 공격수 아웨르 마빌(카디스 CF), 거랭 쿨엘(센트럴코스트 마리너스)은 모두 아프리카 수단 출신이다.

마빌의 부모는 수단 내전을 피해 케냐에 있는 UN 난민 캠프로 향했고, 거기에서 마빌이 태어났다.

난민 캠프에서 10살까지 지낸 마빌은 10살 때 호주로 이주했고, 호주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되자 "호주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 생명의 기회를 줬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마빌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난민 캠프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다. 반군에게 잡혔다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도 들었다"면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성의 힘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호주는 '두 얼굴의 나라'라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월간지 포인 폴리시는 "호주 정부는 2001년 400여 명의 난민을 태운 노르웨이 화물선의 입항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대부분의 난민은 뉴질랜드가 수용했고, 호주는 마지막에 태평양의 섬 나우루에 이들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조별리그 탈락한 사우디 감독 "다음은 아시안컵"

'루사일의 기적'에도 결국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르베르 나르(54·프랑스) 감독은 다음 목표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르 감독은 1일(한국시간)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멕시코에 1-2로 패한 후 취재진에게 "아시안컵 준비를 위한 시간이 있다. 그 대회를 우승하고 다음 월드컵 예선을 돌파하는 게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지면서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나르 감독은 "멕시코가 더 나은 팀이었다"며 "오늘 우리가 이길 자격은 없었다. 그래도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함께한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같은 경기장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격파하며 월드컵 역사에 꼽히는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사우디에서는 정부가 승리를 자축하는 취지로 경기 다음 날인 23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할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러나 이후 폴란드, 멕시코에 연달아 탈미를 잡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16강에 오른 건 1994년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루사일의 기적'을 연출하며 축구 팬들을 열광케 한 나르 감독은 "누구도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이번 월드컵처럼 카타르에서 열리는 다음 아시안컵은 아직 대회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현지 기온 때문에 보통 대회가 열리는 6~7월이 아닌 2024년 1~2월로 개최 시기를 조정해야 할 수 있다.

먼저 탈락한 개최국 카타르의 펠릭스 산체스 감독도 곧바로 아시안컵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직전 대회인 2019년 아시안컵에서 다수의 귀화 선수를 앞세워 8강에서 한국, 4강에서 아랍에미리트,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96년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한국은 초대 1956년 홍콩 아시안컵과 안방에서 열린 2대 대회에서 정상에 있으나 이후 우승과 연을 맺지 못했다. /연합뉴스

## 메시·레반도프스키 '16강 동행'

### 아르헨, 폴란드 꺾고 조 1위 폴란드, 멕시코에 골득실 앞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가 그라운드를 지배한 아르헨티나가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FC바르셀로나)가 침묵한 폴란드를 완파하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전 연속골을 터뜨리며 폴란드에 2-0으로 이겼다.

2승 1패를 기록한 아르헨티나는 조 1위를 유지하며 16강에 올랐다.

아르헨티나는 2006년 독일 대회부터 5회 연속으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제 네 고비를 더 넘으면 아르헨티나는 사상 3번째이자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의 우승을 이루고 메시는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룬다.

폴란드(골득실 0)는 멕시코(골득실 -1)와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1점 차로 앞서 가까스로 조 2위를 해 16강에 올랐다. 폴란드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3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아르헨티나는 D조 2위 호주와 8강 진출을 다투고 폴란드는 D조 1위 프랑스와 16강전을 치른다.

계속 골문을 두드린 아르헨티나가 선제 득점을 올렸다.

전반전 전방으로의 패스 공급에 주력하던 마크 알리스테르가 후반 1분에 직접 골을 생산했다.

마크알리스테르는 나우엘 몰리나(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오른쪽에서 남긴 킥백을 오른쪽 눈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폴란드는 패배 위기에 몰렸는데도 적극적으로 동점골 사냥에 나서지 않았다. 멕시코에 골득실에서 앞서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2번째 골이 터졌다.

후반 22분 알바레스가 엔소 페르난데스(벤피카)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지역 정면에서 수비수 2명 사이를 통과하는 슈팅을 날려 2-0을 만들었다.

아르헨티나는 끝까지 폴란드 진영을 몰아쳤으나 '두 줄 수비'에 막혀 추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메시는 이날 슈팅이 모두 슈펜스에게 막혔으나, 유려한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아르헨티나 공격을 이끌며 '명불허전'의 활약을 펼쳤다.

반면에 레반도프스키는 슈팅 '0개'에 그쳤다. 전반에서 철저히 고립됐다. /연합뉴스



30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C조 조별리그 3차전 폴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앙토니 주앙 리오넬 메시(오른쪽)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경기 종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